

# 겨울진객 몰려온 강진만...장엄한 생태 파노라마



차르르릉, 차르르릉... 강진 강진만에 한 무리의 큰고니들이 줄지어 내려왔다. 튼드리의 강추위를 피해 겨울을 나기 위해서다.

큰고니떼의 강진만 안착은 사뭇하지 않다. 겨울철새 중 가장 큰 몸집답게 착륙이 쉽지 않다. 물갈퀴를 최대한 벌려 바닷물 위로 차르르릉~ 미끄러져 가다 이윽고 멈춘다.

쉽없는 비행으로 지질 범도 하진만 온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무리를 이끌고 강진만으로 돌아왔다.

11월 말 현재 강진만 큰고니 개체수는 무려 2500여마리. 강진만은 겨울철 대표철새인 큰고니떼 집단 월동지로 대한민국 최대 규모다. 강진군 도암면 해창과 칠랑면 구로마을 앞 강진만은 그야말로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고니들의 동지다.

2500마리 이상이 월동하기는 올해가 처음일 것이라고 생태환경전문가는 귀띔했다.

◇큰 고니 큰 울음소리...살아있는 생태계 입증 =큰고니의 울음소리는 크다. 경경경~ 하는 소리가 자신의 존재감과 동시에 강진만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주위에 알린다. 어떤 녀석은 뺨을 치고 다른

**793만평 광활한 갯벌 먹이 풍부**  
**잔잔한겨울바다 최고의 안식처**  
**큰고니 2500여마리 월동 장관**  
**철새와 텃새의 공존을 배우고**  
**무한한 '쉽'이 있는 생태관광지**

녀석은 깃을 다듬느라 분주하다. 그러다 저마다 소리를 꺼양~ 하고 지른다. 또 다른 녀석은 자못 뒷집을 지고 뒤뚱거리다 꼬리를 흔든다. 좀 어린 녀석은 혼자 날기 연습을 부지런히 해댄다.

갯벌 위에서는 뺨(뺨)을 박아야 하고 물에서는 날갯짓과 함께 힘차게 물을 차야 뜬다.

오로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집중한다. 온몸의 에너지를 한 번의 이륙에

쏟아 붓는 모양새다. 한 쌍으로 날기, 떼지어 날기를 반복한다.

노랑부리저어새도 뒤쫓아 주걱모양의 부리로 서로의 털을 털어주거나 등을 긁어주며 정을 나눈다.

강진만 깊은 속살과 품에 안긴 큰고니떼, 이렇게 역대 최대 규모로 큰고니떼가 강진만을 찾은 것은 그만큼 강진만의 생태계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큰고니는 갯벌에 식생하는 연안 염생식물을 먹고 산다. 특히 강진만 너른 갯벌에 사는 새섬매자기를 주로 먹는다. 바닷속 빨발에 뿌리내린 새섬매자기가 주요 먹이다. 고개를 길게 박을 정도로 애를 쓴다. 새섬매자기의 뿌리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탐조객들, 눈 앞 생태계 파노라마에 탄성=탐조객들과 여행

자들은 강진만에서의 큰고니 이륙과 착륙, 그리고 먹이활동 장면에 절로 감탄한다. 바로 코앞서 한편의 생태계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큰고니떼와 겨울철새들의 강진만 안착은 텃새들의 양보와 배려가 있기에 가능하다.

쇠백로와 중백로, 중대백로, 대백로, 왜가리, 갯이갈매기, 일부 텃새화된 흰뺨검둥오리 따위가 큰고니와 기러기, 노랑부리저어새, 민물도요, 알락꼬리도요새, 청둥오리들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고개를 까딱까딱한다고 해서 이를 붙여진 갑작도요도 겹겹이 날아다니는 품이 그럴싸하다. 어느새 한 자리를 꿰찼다. 생존과 공존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거나 한 듯 그렇게 철새와 텃새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갯간에서 인심난다'고 먹잇감이 풍부하기에 가능하리라.

◇광활한 갯벌-겨울 탐조 여행 결정판=793만평에 이르는 강진만 갯벌은 광활하다. 바다 내륙 깊숙한 곳으로 찾아온 겨울철새들에게 갯벌과 호수처럼 잔잔한 이 겨울바다는 최고의 안식처다. 회색빛의 이 터전이 주는 편

안함과 풍족함은 그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어쩌면 바꿀 수 없다.

겨울철새를 품은 강진만에 온 탐조객과 여행자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의 보고라고 입을 모은다.

"겨울철 탐조여행의 결정판은 강진만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고 한국환경생태연구소 이한수 박사는 명쾌하게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대한민국 최대 생태서식지 강진만에는 남해안 11개 하구의 평균두 배인 1131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으며, 탐진강 하구와 강진바다가 만나 이룬 천혜의 자연"이라며 "내년 '남도탐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준비중인 강진군이 이곳을 좀 더 세심하게 보존하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또 "지난 가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통해 만난 강진만은 겨울철새들의 천국으로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겨울철새와 일몰까지 함께 볼 수 있는, 무한한 쉽이 있는 강진만 겨울바다로 어서오시라"고 덧붙였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만을 찾은 철새들이 먹이활동을 위해 쉽없는 날갯짓으로 집단 군무를 펼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진월 · 효천지구 초입구 사거리

## SH BUILDING

광주 남구 행암동 699번지 전용률 83%, 대지면적 1,826,90㎡, 지상 4층, 주차장 36대

**임대·분양** | 진월지구, 효천지구 1만세대, 신도심 핵심상권 중심지, 빚고을 CC 노인건강타운과 전남대병원, 대규모 아파트가 연계된 중심지

1층	금융, 약국, 의류, 커피숍, 안경(입점확정), 호프, 식당	2층	의원, 커피숍, 스킨케어샵, 치과, 학원, 사무실
3층	패밀리레스토랑, 요가, 의원, 휘트니스 등, 학원, 사무실	4층	495㎡, 한식, 카페, 패밀리레스토랑 ※4층 테라스 무료사용가능(150평)

방지분 상가지분 각 상가 개별등기 가능 준공필

**(062)676-4006 · 010-5681-4015**

시행 성희개발(주) 시공 한아종합건설(주)

##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 · 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뷰 유탑유블레스**

- 양산지구 최고 명품입지 명품조합!
- 전세값으로 세아파트 사자!
- 계약금 5% (1,100만원~내집마련)
- 2억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
-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계약금 5%로 내집마련 (1,100만원 이하 부담)

신용보증기금 협력사 선정

안전설계

30년 보증

최신 평면구조

분양문의 **351-4610** (062)

모델하우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8-2-26 농성역 7번 출입구 일터메이커 빌딩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주)유탑디앤씨 (주)유탑건설 (주)유탑